

배드민턴협회장 횡령·배임 의혹... 안세영發 '태풍'

문체부, 非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김택규 회장 1.5억 대 후원물품 '페이백' 확인
2022~24년 후원사와 26억 대 수의계약도 위법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22명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졌고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성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非국대 출전 제한, 직업행사 자유 제한”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비롯해 국가대표 임무 규정과 선발 방식, 실업선수 연봉 계약 등에 걸쳐 전반적인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규정은 비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활동 기간(5년), 연령(여자 27세, 남자 28세)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가운데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배드민턴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에도 제한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한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선수는 지도자·협회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대해서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경기력 70%, 평가점수 30%로 복식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추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인 실업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는 “선수 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장, 횡령·배임 가능성... 보조금법 위반”

문체부는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등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도 횡령·배임·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플록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페이백으로 받았다. 올해에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서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 물품 관리 규정도 위반했다”면서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

거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2~2024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총 26억 원 상당 용품을 구매할 점도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반환 명목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다일리·연합뉴스

LG 타자 오스틴 8월 최우수선수

5년 만의 외국인 선수 수상



오스틴이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홈인하는 2루수자 구본혁을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틴 린(LG 트윈스)이 LG 외국인 타자로는 약 5년 만에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월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KBO는 10일 “오스틴이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8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기자단 투표 30표 중 12표(40.0%), 팬 투표 49만2406표 중 8만9233표(18.1%)를 받아 총점 29.06점으로, 기자단 3표, 팬 투표 18만3367표, 총점 23.62점의 제임스 네일(KIA 타이거즈)을 제쳤다.

LG 선수가 월간 MVP에 뽑힌 건 2023년 5월 박동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LG 외국인 타자로는 2019년 9월 카를로스 페게로 이후 4년11개월 만에 오스틴이 월간 MVP의 영예를 누렸다.

지난 8월 오스틴은 홈런 9개, 2루타 8개, 3루타 1개를 치며 안타 36개 중 절반(18개)을 장타로 채웠다. 또한 홈런 공동 1위, 타점 1위(35개), 장타율 1위(0.745), OPS 1위(1.160) 등 여러 부문에서 월간 1위에 올랐다. 지난 달 24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LG 외국인 타자 최초로 30홈런-100타점 기록도 작성했다. 8월 MVP로 선정된 오스틴은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받는다.



김하성이 지난 달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중 상대 투수에 대한 견제로 1루에 슬라이딩을 하고 난 뒤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부상 김하성 복귀 지연... 샌디에이고 “유격수 놓고 고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입성(2021년) 이후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10일(한국시간) “김하성의 복귀가 미뤄지면서 샌디에이고의 유격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실트 샌디에이고 감독은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벌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7-8로 패한 뒤 “김하성이 송구 훈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하성은 지난 달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중 상대 투수의 견제 때 1루에 슬라이딩하고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를 후인 8월 21일 김하성을 열흘짜리 IL에 올렸으며 등재일은 20일자로 소급 적용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실트 감독은 “확장 로스터(28명)를 적용하는 2일째에는 김하성이 IL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부상 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김하성은 돌아오지 못했다. MLB닷컴은 “김하성이 유격수 자리에서 땅볼을 처리하고,

내야를 가로질러 공을 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0%의 힘으로 던지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실트 감독은 김하성의 공백을 막고자 단기 처방으로 메이슨 매킨이를 유격수 자리에 세웠다. 매킨이는 수비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공격에서는 타율 0.204(49타수 10안타)로 부진했다.

실트 감독은 올 시즌을 시작하며 주전 유격수 자리를 김하성에게 내주고 2루수로 이동한 산티르 보하르츠의 유격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이크 크로넬위스가 1루에서 2루로, 루이스 아라에스가 지명타자에서 1루로 옮

기는 연쇄 이동이 벌어질 수 있다.

선발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도너번 솔라노를 1루수 또는 지명타자로 활용하며 공격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SI는 “보하르츠가 유격수로 돌아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팀 상황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가 가장 바라는 그림은 김하성의 빠른 복귀다.

하지만, 김하성의 복귀가 더 미뤄질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실트 감독은 “아직은 모든 게 유동적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